

20·30대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사용의도*

: 합리적 행동이론을 중심으로

Debt-Use Intention of Young Defaulters o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생활과학연구소

강사 김미라**

순천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 김혜선***

Dept. of Family Environment and Welfare, Human Ecology Research Institute, Chonnam National Univ.

Lecturer : Kim, Mi-Ra

Division of Social Welfare and consumer science, Sunchon National Univ.

Professor : Kim, Hea-Seon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plore the factors that affect debt-use intention of young defaulters. In addition, this study compares three models that predict the intention to use debt by young defaulters: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wo variations of it. Specifically, this study proposes an extended theory of reasoned action by introducing Ao in place of the cognitive structure i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Ao as an independent variable that acts on BI rather than a dependent variable.

Self-administered questionnaires were completed by 196 young defaulters attending a credit management education session held by the Credit Counseling & Recovery Service in Kwang-ju, Korea. Based on the study, the conclusions are as follows: the extended theory of reasoned action as proposed in this article most suitably explained the intention to use debt by young defaulters. It was also found that young defaulters were affected by attitudes toward debt, attitudes toward using debt, and subjective norms. It is therefore suggested that an attitudinal message would change the behavior effectively for young defaulters.

The findings appeared to support the usefulness of the extended theory of reasoned action and the role of Ao as an independent variable as proposed in this article to explain the intention to use debt by young defaulters. These findings have an important theoretical meaning in that they modify two existing attitude theories in the context of consumer behavior.

▲주요어(Key Words) :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태도(attitudes),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 부채사용의도 (debt-use intention), 채무불이행자(defaulters)

* “이 논문은 2006년 정부재원(교육인적자원부 학술연구조성사업비)으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6-353-C00063).”

** 주 저 자 : 김미라 (E-mail : mrkim@jnu.ac.kr)

*** 교신저자 : 김혜선 (E-mail : kim3672@sunchon.ac.kr)

I. 서론

소비자가 부채를 사용하는 이유는 재정적인 합리화이다. 그러나 부채사용은 소비지출의 균형과 레버리지 효과로 재무관리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으나, 금리인상, 실직이나 사고 등과 같은 기대하지 못한 사건들로 인해 예상과는 다른 현금흐름이 발생하게 되는 경우 위험요소가 될 수도 있다. 최근의 인플레이션 국면과 함께 추가적인 금리인상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계부채는 이에 대한 구조적인 대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앞으로 가계경제 뿐만 아니라 국가경제를 위협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가계신용(가계대출+판매신용)은 2010년 1/4분기에 739.1조원에 달하며 이는 전년동기대비 8.1%가 증가한 것으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치이다. 문제는 부채의 규모 자체보다 가계의 부담능력에 있다. 가계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개인가처분소득 대비 금융부채비율(debt to income ratio)은 2008년 1.39배에서 2009년 1.43배로 상승하였다(한국은행, 2010). 이는 부채의 증가속도가 소득의 증가보다 더 빠르다는 뜻으로 그만큼 부실화의 위험이 커졌다는 의미이다.

채무불이행자의 수는 2007년 9월 266만명으로 전체 경제활동인구의 약 10%를 넘어섰으며(국정브리핑, 2008), 특히 아직 소득이 없거나 낮아서 경제적인 기반이 구축되어 있지 않은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이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근로자의 실질소득은 감소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세계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청년실업문제는 앞으로도 쉽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젊은 층의 채무불이행 문제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우리 경제가 장기적인 성장과 안정을 위한 모멘텀을 마련하기 위해서, 젊은 채무불이행자들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소비자교육의 지침과 개입프로그램 구성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며, 후속 연구에 제언점을 줄 수 있는 기초적인 연구가 많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동안 채무불이행자에 관한 조사·연구나 교육프로그램은 많지 않다. 이는 신용정보제도의 역사가 일천하다는 데에도 원인이 있지만,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인식으로 인해 모집단이 잘 드러나 있지 않아서 경험적인 조사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다.

부채사용이나 연체(채무불이행 포함)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한 결과, 소득(Getter, 2003; Godwin, 1997; Hira, 1990; Stavins, 2000; 이기춘·박근주, 1997; 조혜진·최현

자, 2006; 최현자·조혜진, 2008), 자산(Godwin, 1997; Hira, 1990; Stavins, 2000; 성영애·양세정, 1995), 부채(이기춘·박근주, 1997; 조혜진, 2004; 조혜진·최현자, 2006; 최현자·조혜진, 2008), 부채접근성(Godwin, 1997) 등의 재무적 변인들과 돈에 대한 태도(조혜진, 2004; 조혜진·최현자, 2006), 부채에 대한 태도(Godwin, 1997; Lea et al., 1993; Livingstone & Lunt, 1992; Thaler, 1990; 성영애·정희영, 2006; 김정훈, 2000), 부채억제신조(이기춘·박근주, 1997; 이은영·허은정, 2005; Thaler, 1990), 자기통제(Bar-Gill, 2004), 시간선호율(Bar-Gill, 2004; Lea et al., 1995) 등의 심리적 변인들, 그리고 연령(Godwin, 1997; Hira, 1990; Stavins, 2000; 성영애·양세정, 1995; 조혜진, 2004; 조혜진·최현자, 2006), 직업(성영애·양세정, 1995; 이기춘·박근주, 1997; 이은영·허은정, 2005; 조혜진, 2004; 조혜진·최현자, 2006; 최현자·조혜진, 2008), 교육수준(Hira, 1990; Stavins, 2000), 주택소유여부(Getter, 2003; Lea et al., 1995; 성영애·양세정, 1995) 등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이 영향변인으로 제시되었으며, 이 중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을 언급한 연구들은 연령만이 공통적으로 부채사용과 관련이 있으며, 연령이 낮을수록 부채사용에 따른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20대 또는 30대가 가장 심각한 위험집단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금융채무불이행자의 연령별 비율은 30대의 경우 가장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재정경제부, 2004; 임대봉·이봉완, 2005).

부채사용행동도 소비자행동의 하나이다. 소비자행동을 설명하는 잘 알려진 두 가지 접근법은 전통 경제학과 행동 경제학이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소득이나 지출과 같은 재무적인 변인들과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주목하고, 행동 경제학에서는 태도나 의도와 같은 심리적인 변인들에 관심을 갖는다. 채무불이행자를 결정하는 요인을 인구통계학적, 재무적, 심리적 변인들로 구분하여 조사한 연구는 심리적 변인인 돈에 대한 태도가 가장 영향력이 큰 요인이라고 보고하였다(조혜진, 2004).

본 연구에서는 부채사용에 따른 위험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지적된 20·30대로 연령을 제한하고, 이미 연체를 경험하고 채무를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하기 어렵기 때문에 조정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로 한정함으로써 인구통계 및 재무적 여건을 비교적 유사하게 통제하고자 한다. 인구통계 및 재무적 여건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소비자행동을 보이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심리적인 변인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의 심리적 영향요인들을 모두 포함하는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고자 한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태도 뿐만 아니라 사회적 규범이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한다. 그동안 소비자행동에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많은 연구들은 개인뿐만 아니라 다른 가족원 모두에게도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계 역동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소비자행동도 합리적 행동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증명해 오고 있다(Bagozzi et al., 1992; Miniard et al., 1982; Oliver & Bearden, 1985; Ryan & Bonfield, 1980; Shimp & Kavas, 1984; 이철, 1990; 이학식, 1997; 이학식 · 김영, 2000). 또한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들 중 상당수는 다른 문화나 다른 행동-이러테면 소비자 행동-의 경우 대상에 적합하게 모델의 구성변인을 가·감한 수정모델들을 제시하였다. 이는 대상과 행동을 고려하지 않고 합리적 행동이론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대상과 행동에 대해 합리적 행동이론의 구성변인간 인과관계를 검증하여, 이를 수정하고 보완함으로써 모델을 확장할 필요가 있음을 의미한다.

채무불이행자들은 부채문제를 경험함으로써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태도가 이미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가 부채사용에 대한 태도(Aact)와 의도(BI)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이를 포함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의 수정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합리적 행동이론의 기본모델과 소비자구매행동 분석을 위해 비용을 포함하고 있는 수정모델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젊은 채무불이행자들의 부채사용의도를 설명하는데 보다 적합한 모델을 찾고, 관련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배경

1. 태도모델

마케팅 전략을 수립할 때, 흔히 태도의 유사성과 차별성을 기초로 시장세분화를 시도하며, 태도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신념을 자극함으로써 태도의 변화를 유도하는 소구를 한다. 태도는 이와 같은 실무적인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연구에서도 매우 중요한 개념으로서, 태도를 중심 개념으로 하는 연구들은 매우 많다.

선행연구들은 태도를 '대상에 대한 비교적 안정적인 감정 반응(Thurstone, 1931)',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정적/부적 평가 간 학습된 연합(Fazio, 1990; Ajzen & Fishbein, 2005에서 재인용)', '기대산출에 근거한 행동에 대한 일반적 감정(East, 1993)', '대상에 대한 평가적 반응(Ajzen, 2008)', '심리적 대상에 대한 호의/비호의 정도에 응답하는 성향(Ajzen & Gilbert Cote, 2008)'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태도는 쉽게 변하기보다는 '안정적이고', 선천적이기보다는 '학습된', 논리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인'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대상에 대한 평가적 반응'임을 알 수 있다.

인간은 다양한 대상이나 행동, 사건들에 대한 태도를 미리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면서 관찰이나 추론 등을 통해 획득한 신념들을 토대로 형성해 나가게 된다. 태도에 인지적인 기초를 이루는 신념은 개인의 인지적 과정을 거치면서 필요에 따라 왜곡될 수도 있으므로, 객관적이고 논리적이기 보다는 매우 주관적인 개념이다.

신념이 태도의 기초를 이룬다는 개념을 중심으로 하는 태도형성의 기대-가치모델(EV : expectation-value model)을 설명한 Fishbein(1963)에 따르면, 개인은 태도대상을 어떤 속성에 연결지음으로써 신념을 형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넷북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는 소비자를 생각해 보자. 마침 친구가 크기가 작아서 휴대하고 다니기도 편리하지만, 가격 대비 성능도 좋다고 이야기한다면, 소비자는 넷북이 작아서 편할 뿐만 아니라 효율적이라고 믿게 될 수 있다. 넷북이라는 대상에 크기와 효율성이라는 속성들에 대한 신념이 연결됨으로써 대상에 대한 태도가 형성되는 것이다. 신념과 태도의 결합방식은 다음 방정식에서 기술된다.

$$A_o = \sum_{i=1}^n b_i e_i$$

여기서 A_o 는 대상에 대한 태도이고, b_i 는 신념의 강도(strength of the belief), 즉 i 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가능성이며, e_i 는 i 속성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evaluation of attribute i)이고, n 은 신념의 수(the number of accessible attributes)이다. 신념의 강도 즉 대상이 해당 속성(i)을 가지고 있을 주관적 가능성(b_i)은 각 속성에 대한 주관적 평가(e_i)에 정비례하여 신념지수($b_i e_i$)에 기여하며, 개인의 태도(A)는 합계된 신념지수에 정비례하는 것으로 기대된다.

태도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Ajzen, 1982; Ajzen & Fishbein, 2005; Ajzen & Gilbert Cote, 2008). 먼저 첫 번째 유형은 민주주의나 카톨릭과 같은 추상적인 개념, 어떤 조직이나 유명인, 조형물이나 핸드폰과 같은 물리적인 실체 등과 같이 특정 행동을 야기하지 않는 것이다. 두 번째 유형은 특정 연예인의 공연 관람이나 핸드폰 구매 등과 같은 특정 행동과 독서나 운동과 같은 행동 범주들이다. 첫 번째 유형과 관련된 평가적 경향은 대상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n object : A_o)로서 전반적인 태도(global attitudes)를 의미하며, 두 번째 유형과 관련된 평가적 경향은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 behavior : A_{act})로서 보다 구체적인 것이다.

전반적 태도(A_o)가 행동(behavior : B)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것은 Fazio(1990)의 MODE(motivation and opportunity act as determinants of spontaneous versus deliberative attitude-to-behavior processes) 모델이다(Ajzen & Fishbein, 2005에서 재인용). 이 이론에서

태도는 '대상과 그 대상에 대한 정적/부적 평가 간 학습된 연합'으로 정의되며, 숙고형(a controlled or deliberative fashion)과 자동형(an automatic or spontaneous fashion)의 두 가지 방식으로 행동과 연결된다. 숙고형은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와 인지적 역량이 충분할 때 태도가 의식적으로 인출되어 행동을 유도하는 방식을 말하고, 자동형은 동기나 인지적 역량이 부족한 경우에 태도의 자동활성화 여부에 따라 행동과의 연결여부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태도가 강할수록 자동으로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다. 의식적으로 인출된 것이든 자동으로 활성화된 것이든 간에, 호의적 태도를 가진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상의 정적 속성에 더 주목하는 경향을 가지므로, 전반적 태도는 행동과 연결될 수 있다.

태도가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할 것이다. 그러나 똑같이 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더라도 구체적인 행동은 다르게 수행할 수 있다. Fishbein과 Ajzen(1974)은 종교와 관련된 100가지 행동들의 수행여부와 태도의 관련성을 조사한 결과, 전반적 태도는 총체적 행동과는 상관이 높았지만 개별 행동과는 상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대해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척도를 구성할 때는 특정 행동(예를 들면, 구매), 특정 상황(텔레마케팅), 특정 대상(특정 휴대폰), 발생 시간(1년 이내) 등의 구체적인 행동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적합성 원리(the principle of compatibility)가 제안되었다(Ajzen & Fishbein, 1977). 이 원리에 따르면 태도와 행동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사하고자 하는 행동과 태도를 일반성/특수성의 관점에서 같은 수준으로 측정하여야 한다. 즉 전반적 행동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전반적 태도를 측정해야 하고, 특정 행동을 예측하고자 한다면 특정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해야 한다. 실제로 선행연구들은 구체적인 행동에 대한 태도가 특정 행동을 잘 예측함을 보여주었다(Ajzen & Fishbein, 1980; Ajzen & Manstead, 2007; Bentler & Speckart, 1979, 1981; Bonfield, 1974; Davidson & Jaccard, 1979; Godin et al., 1987; Kothandapani, 1971; Kraus, 1995; Manstead et al., 1983; Rhodes et al., 2005; Terry & O'Leary, 1995; Zuckerman & Reis, 1978).

MODE 모델은 전반적 태도(Ao)가 충분히 강하면 행동결과의 인식에 영향을 줌으로써, 행동에 대한 태도(Aact)에 영향을 준다고 설명한다. 이런 이유로 전반적 태도는 행동수행과 연결된다(Ao-Aact-B). 그러나 Ajzen과 Fishbein(2005)은 한번 형성된 태도는 다음에 태도 대상이 등장할 때 그 기저가 되는 정보나 신념을 의식적으로 검토하지 않고도 자동으로 활성화될 수 있으므로, 전반적 태도는 주어진 정보를 처리하고자 하는 동기와 인지적 역량의 크기와는 상관없이, 행동에 대한 태도에 영향을 주고 이런 영향이 행동의 수행과 연결된다고 하였다(Ao-Aact-B).

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Ao)를 가진 사람

이나 부채사용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Aact)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부채사용의 정적 속성에 더 주목함으로써 긍정적인 사용의도를 형성할 것이다. 또한 부채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태도(Ao)를 가지고 있으면 부채사용에 대한 태도(Aact) 또한 호의적일 경향이 높기 때문에,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가 부채사용에 대한 태도(Aact)의 선행요인이 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가설이 도출된다.

H1 : 부채에 대한 긍정적 태도(Ao)는 부채사용의도(BI)에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H2 : 부채에 대한 긍정적 태도(Ao)는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를 매개로 하여 부채사용의도(BI)에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H3 :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긍정적 태도(Aact)는 부채사용의도(BI)에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행동의 결과는 지식에 기초한 도구적인 것과 감정에 초점을 둔 경험적인 것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이런 요소들을 적절히 포함할 필요가 있다(Ajzen & Driver, 1992). 그동안 태도를 조사한 연구들이 다중척도를 이용하여 개념의 여러 측면들을 측정하고 오차를 줄여야 한다는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단일문항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으며 아직 표준화된 절차는 없는 실정이다(East, 1993). 본 논문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 도구적 요소와 경험적 요소를 모두 포함한 다중척도를 이용하였다.

2. 합리적 행동이론과 사회적 영향 변인

태도와 행동 간의 관계에 관한 경험적 연구들이 일관적이지 않은 결과들을 보고함에 따라 기존 태도모델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많은 연구자들이 이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태도 변인의 바른 개념화와 조작화의 문제, 그리고 태도 외의 사회적 규범이나 상황, 개성 등의 변인들을 추가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주로 제안되었으며, 이에 대해 Fishbein과 Ajzen(1975)은 합리적 행동이론(theory of reasoned action : TRA)을 제시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의 기본 모델은 주어진 상황에서 개인의 행동은 해당 행동을 수행하고자 하는 의도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의도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내부화된 준거자의 영향 즉 주관적 규범이라는 2개의 결정인자로부터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형성된다고 설명한다. 이를 부채사용행동에 적용하면, 소비자의 부채사용행동은 부채를 사용하고자 하는 의도에 영향을 받으며, 이는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소비자 자신의 태도와 자기에게 중요한 타인들이 소비자의 부채사용행동에 대해 용인하는가 또는 거부하는가에 대한 소비자 자

신의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이 이론의 중심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 \sim BI = (Aact)\omega_1 + (SN)\omega_2,$$

$$Aact = \sum_{i=1}^n biei, \quad SN = \sum_{j=1}^k NB_jMC_j$$

여기서 B는 특정 행동(overt behavior)이고, BI는 행동의도(behavioral intention), Aact는 행동에 대한 태도(attitude toward a behavior), SN은 주관적 규범(subjective norms)이다. NB_j는 규범적 신념(normative belief)이며, MC_j는 규범적 신념에 부응하려는 동기(motivation to comply)이고, k는 신념의 수이다. 그리고 ω_1 과 ω_2 는 경험적으로 결정된 가중치(empirically determined weights)이며, 이는 행동의 종류, 수행조건 또는 수행주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합리적 행동이론은 기존 태도모델에서 전반적 태도를 구체적으로 행동에 대한 태도로 대체하고, 행동의 영향요인으로서 개인적 또는 '태도적' 요소만을 고려한 데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사회적 또는 '규범적' 요소를 포함하고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준거인에 의해 행동의 승인 또는 비승인을 다루는 고려를 보통 규범적 신념이라 하며, 이런 신념들이 합산되어 행동을 수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지각된 사회적 압력 또는 주관적 규범으로 이끈다. 준거자가 행동을 수행하거나 행동수행을 기대할 것이라고 생각되면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압력을 발휘하고, 규범적 신념들이 대립될 때 지각된 사회적 규범은 행동을 수행하지 않도록 하는 압력을 줄 것이다(Ajzen & Fishbein, 2005).

개인이나 가계의 부채사용은 개인적인 측면과 동시에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인해 사회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가족원들이나, 친구, 동료, 사회 등의 준거인의 승인 여부에 대한 지각이 부채사용의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H4 : 부채사용의도(BI)에 대한 긍정적 주관적 규범(SN)은 부채사용의도에 정적으로 관련될 것이다.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르면, 예측되어야 하는 기준은 행동의 변량 대부분을 설명하는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의도로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이 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행동의도를 통해 거의 전부 매개된다(Shimp & Kavas, 1984). 즉 행동의도를 예측할 수 있다면 행동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Ajzen & Fishbein, 1969). 과거 연구들은 행동의도를 예측하는 변인들인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간의 강한 상관을 토대로 상호의존성/독립성에 관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나 최근 연구들은 두 개념 간의 개념적 구별이 타당하며(Ajzen, 2001),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에 영향을 주는 신념 변인들의 상호의존성에 의해 문제가 야기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Ryan, 1982). 즉 인지적/규범적 신념 단계에서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지만, 일단 형

성되어 내부화된 태도와 주관적 규범 간에는 서로 영향을 준다고 기대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은 행동의도에 상호독립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Fishbein & Ajzen, 1975).

행동의도에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상대적인 강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 Sheeran과 Taylor(1999)는 태도에 기초한 행동의도가 주관적 규범에 기초한 행동의도보다 일상의 행동수행을 더 잘 예측하는 경향이라고 한 것에 비해, Trafimow와 Finlay(1996)는 30가지 다른 행동들에 대해 분석한 결과,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의 가중치가 개인에 따라 그리고 대상 행동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구체적으로, 의견선도자(Gur-Arie et al., 1979)이거나 사전 경험이 있는 사람의 경우(Hill et al., 1996),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구매행동의 경우(Ajzen & Fishbein, 1980)에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행동의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관적 규범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의견선도자가 아니거나 사전 경험이 없는 사람의 경우, 타인을 위한 구매행동의 경우에는 주관적 규범이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Ajzen & Fishbein, 1980). 문화나 상황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여서, 개인주의적인 문화의 경우(Abrams et al., 1998)나 경쟁적인 상황인 경우(Ajzen, 1971), 부정적인 분위기 조건(Armitage & Conner, 1999)에서는 행동에 대한 태도가, 집단주의적인 문화의 경우나 협조적인 상황인 경우, 긍정적인 분위기 조건에서는 주관적 규범의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과중한 채무로 인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본 연구대상자들의 경우에는 이미 부채를 사용해 본 사전 경험이 있으며, 긍정적이기 보다는 부정적인 분위기 조건에 있으므로, 행동에 대한 태도가 주관적 규범에 비해 부채사용의도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이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H5 : 부채사용의도(BI)에 대해 행동에 대한 태도(Aact)의 영향력이 주관적 규범(SN)보다 클 것이다.

주관적 규범을 측정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척도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태도를 측정할 때 도구적 요소(예를 들면, 바람직한-바람직하지 않은, 가치있는-가치없는)와 경험적 요소(예를 들면, 즐거운-불쾌한, 흥미로운-지루한)를 모두 포함시켜야 하는 것과 같이, 주관적 규범을 측정할 때 지시적 요소(즉, 다른 사람들이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에 대한 지각)와 기술적 또는 행동적 요소(즉,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 가의 지각)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고 한 Ajzen과 Fishbein(2005)의 설명에 의거하여, 본 논문에서는 지각된 가족 및 친구들의 생각(지시적 요소)과 중요한 타인의 부채사용행동(기술적 요소)을 측정하는 다중척도를 이용하여, 주관적 규범의 지시적 요소와 기술적 요소를 모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합리적 행동이론의 수정모델

합리적 행동이론은 1975년 개발된 이래 사회심리학과 소비자행동 영역에서 폭넓은 지지를 받아왔다. 특히 Sheppard 등(1988)은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들을 메타분석한 결과, 합리적 행동이론이 행동과 의도를 매우 잘 설명할 수 있으며, 행동수정을 위한 전략을 세우는 데도 유용하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특정 영역의 역동적 과정 보여주기 위해 이론적 연결을 바꿔보거나 다른 변인을 추가함으로써 모델을 확장하여 왔다(Ajzen, 1985; Bagozzi et al., 1992; Davidson & Morrison, 1983; Gorsuch & Ortberg, 1983; Miniard & Cohen, 1983; Zuckerman & Reis, 1978; 이철, 1990; 이학식, 1997; 이학식·김영, 2000).

Miniard와 Cohen(1983)의 연구는 합리적 행동이론이 행동수행결과에 대한 모든 신념들을 태도요소로 결합하고 모든 사회적 영향들을 주관적 규범으로 통합한 것에 대해, 일부 사회적 영향은 태도와 주관적 규범 양측에 모두 관련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계산'이 될 수 있다고 하면서, 태도와 주관적 규범 대신 개인적 동기와 규범적 동기를 독립변인으로 한 수정모델을 제시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에 대한 인식으로부터 신념을 구분해 내고자 하였다. 다음은 이들의 수정모델을 합리적 행동이론과 같은 방식으로 표현한 것이다.

$$B \sim BI = (PE)\omega_1 + (NE)\omega_2,$$

$$PE = \sum_{i=1}^n bpc_i epc_i, NE = \sum_{j=1}^k bnc_j enc_j$$

여기서 PE(NE)는 개인적(규범적) 동기, bpc(bnc)는 개인적(규범적) 결과의 신념, epc(enc)는 개인적(규범적) 결과의 평가, n(k)는 개인적(규범적) 결과의 수이다. 그러나 실증분석결과, 제안된 수정모델보다 합리적 행동이론의 모델에 예측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jzen(1985)은 행동의 수행이 의도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 통제가 불가능한 의지력이나 심리변인 등과 같은 다른 변인들에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면서, 의도와 행동 간의 관계를 방해하는 개인적/외적 요인들 중에서 특히 의지적 통제가 중요하므로, 행동의 결정요인으로서 이를 포함하도록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장하여, 계획적 행동이론(theory of planned behavior)이라고 명명하였으며, 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B \sim BI = (Aact)\omega_1 + (SN)\omega_2 + (PBC)\omega_3$$

PBC(perceived behavioral control)는 지각된 행동통제로서 실제 통제력(actual control)에 대한 대리변수(proxy)이다. 그동안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한 연구는 매우 많다. 그 중 다양한 행동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메타분석한 연구에서는 지각된 행동통제가 의지적인 통제가 가능한 행동의 경우 영향력은 거의 없었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 의미있는 영

향력을 보여주었는데, 평균적으로 의도에 약 6%, 행동에 약 2%의 설명력을 추가했다고 보고하였다(Armitage & Conner, 2001). 따라서, 대상 행동이 순수하게 의지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면 합리적 행동이론을 적용하고, 통제수준이 문제가 되는 행동인 경우 계획적 행동이론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철(1990)은 개인주의적인 가치관을 배경으로 하는 미국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검증된 합리적 행동이론을 그대로 받아 들여, 집단주의적인 문화 내의 소비자행동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한국 소비자들의 행동에 강한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압력인 체면의식과 집단동조의식을 포함한 한국적 수정모델을 개발하였다. 이 모델을 방정식으로 표현한 것은 다음과 같다.

$$B \sim BI = Aact + FS + GC,$$

$$Aact = \sum_{i=1}^n bie_i + FS + GC$$

여기서 FS(face-saving pressure)는 체면의식이고, GC(group-conformity pressure)는 집단동조의식이다. 즉, 태도와 두 사회적 변인들에 의해 구매의도가 결정되며, 태도도 행동의 결과에 대한 신념과 평가 뿐만 아니라 이 두 사회적 변인들의 영향을 받아 결정된다는 것이다. 실증분석결과, 한국적 수정모델이 합리적행동이론의 모델보다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식(1997)의 연구에서는 선물선택행동은 선물수령자가 그 선물을 좋아할 것인가, 나아가 그 선물을 제공하는 자신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를 고려하게 되므로, 자신의 소비 및 사용을 위한 구매행동과는 매우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을 수정하여 선물선택행동보다 적합한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즉, 특정 선물을 받는데 대한 수령인의 태도에 관한 제공자의 지각(giver's perception of the recipient's attitude toward receiving the gift: RAact)을 독립적인 이론 개념으로 모델에 포함하였으며,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B \sim BI = (Aact)\omega_1 + (RAact)\omega_2 + (SNe)\omega_3$$

RAact는 선물수령인의 태도(recipient's attitude)에 대한 선물제공자의 지각이며, SNe는 중요한 다른 사람들(선물수령인 제외)이 그 행동을 지지할 것인가에 관한 선물제공자의 주관적 규범이다. 연구결과, 제안모델이 기존의 합리적 행동이론의 모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학식과 김영(2000)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에 비해 소비자의 구매행동 결정에는 금전적 비용이 크게 영향을 갖는데, 합리적 행동이론은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에 관한 이론이기 때문에 비용을 중요한 요인으로 충분히 고려하지 않는다는 한계가 있다고 하면서, 소비자 구매행동의 경우 인지구조

대신 대상이 마음에 드는가 즉 대상에 대한 태도(Ao)와 비용의 비교를 통해 Aact가 결정되며, 행동에 대한 태도(Aact)와 주관적 규범(SN) 뿐만 아니라 대상에 대한 태도(Ao)와 비용도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갖는 것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의 모델을 수정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으며, 연구결과, 제안된 모델이 합리적 행동이론의 모델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B \sim BI = (Aact)\omega_1 + (SN)\omega_2 + Ao + \text{비용},$$

$$Aact = Ao + \text{비용}$$

이상을 종합하면, 태도모델은 신념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태도가 행동을 예측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합리적 행동이론은 태도모델에 사회적 규범을 추가함으로써 구성되었다. 또한 합리적 행동이론의 수정모델들은 적용되는 대상에 적합하게 통제나 비용과 같은 새로운 변수들을 포함함으로써, 합리적 행동이론을 확장하거나 태도나 사회적 규범을 다른 변수들로 수정하여 행동의 예측력을 높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경우 부채사용행동이 개인의 일반적인 행동이 아닌 소비자행동이므로 위의 수정모델들 중에서 이학식과 김영(2000)의 수정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대상자들처럼 이미 사전경험을 통해 전반적인 태도가 호의적으로 또는 비호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 이러한 전반적 태도(Ao)가 행동에 대한 태도(Aact)와 의도(BI)에 영향을 미칠 것이므로 이 수정모델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구체적인 이자율과 부채상환방법 등 부채에 관한 금융정보가 찾기 쉽게 제공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소비자들도 탐색비용을 높게 평가하여 정보탐색을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소비자들이 부채사용으로 인한 비용을 쉽게 평가하기 어렵다. 또한 비용은 재무적인 변인으로서 개인적·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하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관심영역 밖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30대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사용의도를 결정하는 모델로서, 이학식과 김영(2000)의 모델에서 재무적 변인인 비용을 제외하고 심리적 변인인 전반적 태도와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을 포함한 모델을 제안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모델

본 연구의 목적은 20·30대 채무불이행자들의 부채사용의도에 대해 수정모델을 제안하고, 합리적 행동이론의 기본 모델과 이학식·김영(2000)의 수정모델과 비교분석을 통해 적합한 모델을 찾아, 모델의 구성변인들간 인과관계를 분석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구조(bie1)에 의해 영향을 받은 대상의 행동에 대한 태도(Aact)가 주관적 규범(SN)과 함께 행동의도(BI)를 결정한다는 합리적 행동이론에 대하여, 이미 부채 문제를 경험한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 대상에 대한 전반적 태도가 구체적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행동에 대한 태도(Aact)와 의도(BI)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제에 따라, 행동에 대한 태도(Aact)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인지구조(bie1) 대신 대상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를 포함하고, 대상에 대한 전반적 태도(Ao)가 부채사용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갖는 다음 방정식과 같은 연구모델을 제안하였다.

$$B \sim BI = (Aact)\omega_1 + (SN)\omega_2 + Ao,$$

$$Aact = Ao$$

이를 통해,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사용의도에 대해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와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개인의 부채사용에 대해 개인이 지각하는 사회적 압력을 나타내는 주관적 규범(SN)과 부채사용의도(BI)와의 인과관계를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양적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금융채무를 연체하여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를 통해 채무조정을 신청한 채무불이행자로 제한하였다. 또한 연령이나 생활주기에 따라 부채사용의 목적과 부채사용의 경험정도가 다를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통제하기 위해 20·30대의 젊은 채무불이행자로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제한하였다.

신용회복위원회에서는 심의를 통해 신청자의 채무조정 승인여부를 결정된 후, 승인이 되면 신청자로 하여금 의무적으로 신용관리교육을 이수하고 채무조정합의서를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 신용회복지원을 받는 채무불이행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서(금융감독원, 2006), 생업 때문에 신용관리교육 시간 이외에 따로 조사를 위한 시간을 요청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에, 예비조사는 훈련된 수퍼바이저들이 교육시간 중에 연구의도를 설명한 후 질문지를 배부하고 설문문항에 응답하도록 한 후 바로 회수하였다.

2차례에 걸친 예비조사를 진행한 결과, 일부 연구대상자들이 수퍼바이저들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으며, 이것이 바로 신용회복위원회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져서, 본조사는 신용관리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가 직접 교육시간에 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한 자료는 질문지를 이용하여 수집되었으며, 본조사는 2009년 8월 3일부터 2009년 8월 27일까지 4주 동안 실시하였다. 현재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의 신용관리

교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에 실시되며, 각 회당 교육대상자가 약 30명으로 1주일에 약 150명이 교육을 받는다. 회수된 질문지는 총 519부였으며, 이중 40세 미만의 젊은 채무불이행자의 경우는 전체의 약 40% 해당하는 209부였으나, 부실응답과 무응답을 제외하여 총 196부를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을 위해서 SPSSWIN 17.0 통계 패키지와 LISREL 8.30을 이용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통계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척도의 신뢰도 검증은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여 내적일관성을 파악하였으며,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였다. 또한 각 구성개념을 측정하는 측정도구의 타당도 검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 탐색적 요인분석 및 확증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고, 연구 모델의 적합도 및 가설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델 분석(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모델간 비교를 위해 χ^2 different test를 실시하였다.

3. 척도의 구성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주요 이론변인들인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와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주관적 규범(SN), 부채사용의도(BI), 비용(cost), 그리고 신념(bi)과 평가(ei)는 모두 '전혀 그렇지 않다'의 1점에서 '매우 그렇

다'의 5점까지의 리커트 척도(a 5-point Likert scale)로 구성하였다. 구체적인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는 부채에 대한 전반적인 개인의 호의적/비호의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이은영과 허은정(2005)의 연구와 조혜진과 최현자(2006)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돈을 빌리는 것에 대한 생각'과 '부채불가태도' 등을 포함한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부채불가태도를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채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73이다.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는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개인의 호의적/비호의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학식과 김영(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유익하다(도구적 요소)'와 '마음에 든다(경험적 요소)' 등을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채사용행동에 대해 호의적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요인분석 결과 1개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α)는 .88이다.

중요한 타인이 주어진 행동을 수행하거나 행동수행을 승인/거부할 가능성과 관련한 주관적규범(SN)을 측정하기 위해서 중요한 타인을 가족, 친구로 구분하여 이들의 현재 수행정도(기술적 요소)와 승인가능성(지시적 요소)을 3문항으로 측정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개인의 부채사용에 대해 중요한 타인들이 호의적인 것이라고 평가함을 의미한다. 요인

<표 1> 척도의 구성

변 인	문 항	척 도	cronbach's α 값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 (Ao)	꼭 필요한 것이라면 돈을 빌려서 사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73
	어떠한 경우에도 빚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지금은 돈이 없지만 곧 벌게 된다면 우선은 빌려서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부채사용행동 에 대한 태도 (Aact)	집을 구입하기 전이라도 차는 꼭 있어야 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88
	내가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유익하다.		
	내가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마음에 든다.		
주관적 규범 (SN)	내 가족들은 내가 빚을 사용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95
	내 친구들은 내가 빚을 사용하는 것을 좋게 생각한다.		
	내 가족이나 친구들은 빚을 사용한다.		
비용 (cost)	부채 이자는 나에게 큰 부담이 된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89
	부채를 사용하면 다른 품목의 지출을 포기해야 한다.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큰 희생이 따른다.		
인지 (biei)	bi1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나에게 무리한 일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ei1 나에게 무리한 부채를 사용하는 것은 나쁘다.		
	bi2 부채를 관리하는 것은 나에게 무리한 일이다.		
	ei2 나에게 무리한 부채관리는 나쁘다.		
부채사용 의도(BI)	나는 앞으로 필요하면 빚을 사용할 것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 매우 그렇다의 5점 척도	
	나는 다른 사람에게 필요하면 빚을 사용하도록 권유할 것이다.		

분석 결과 1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a)는 .95이다.

비용(cost)은 이학식과 김영(2000)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부담이 된다'와 '희생이 따른다' 등을 포함한 3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3문항 모두 역점수화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부채사용에 따른 비용이 낮은 것으로 평가함을 의미한다. 요인 분석 결과 1개 요인이 추출되었으며, 내적합치도(cronbach's a)는 .89이다.

인지구조(biei)는 먼저 i속성에 대한 신념(bi)을 측정하기 위해서 '부채사용'과 '부채관리'의 두 항목에 대해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그 결과에 대한 평가(ei)는 bi척도와 1대 1로 대응된 2문항의 척도로 측정하였다. 인지구조(biei)는 대응된 각 항목들을 곱하여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부채사용의도(BI)는 향후 부채를 다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것인가에 대한 주관적인 의도를 의미하며, 개인이 부채를 다시 사용할 의도가 있는가와 타인에게 권유할 의도가 어느 정도 있는 가를 묻는 2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부채사용의도의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척도에서 사용한 문항들과 cronbach's a값은 다음 <표 1>에 제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표 2>와 같다.

2. 척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

먼저 각 이론변인별 측정변인들의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측정변인들의 내적 일관성을 분석하는 cronbach's a를 계산하였다. 분석결과, 제거시 이론변인들에 대한 측정변인들의 cronbach's a계수를 증가시키는 항목은 특별히 없었으며, <표 3>에서와 같이 cronbach's a계수는 모두 .73 이상으로 나타나서, 각 이론변인의 측정변인들이 비교적 신뢰할만하다고 할 수 있다.

척도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탐색적 요인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개별 문항들의 양호도를 분석하기 위해,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 b1e1과 b2e2의 상관계수가 .70이상으로서 상관관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이 중 b2e2를 제외하였다.

다음으로 각 이론변인별 측정변인들을 대상으로 직각 회전(varimax rotation) 방식에 의한 주성분 분석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의거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

<표 3> 탐색적 요인분석결과

성 별	최초 문항수	a 계수	요인분석결과 남은 항목 수
Ao	4	.73	2
Aact	3	.88	2
cost	3	.89	3
SN	3	.95	3
biei	2	-	1
BI	2	-	2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징

변 인	집 단	n	%	변 인	집 단	n	%
		(194)	(100.0)			(194)	(100.0)
성 별	남	106	54.6	연 령	20대	39	20.1
	여	88	45.4		30대	155	79.9
교육수준*	중졸 이하	6	3.6	혼인상태*	미혼	71	38.4
	고졸	85	50.6		기혼 및 동거	101	54.6
	대학 이상	77	45.8		이혼, 별거, 사별 등	13	7.0
월평균 소득*	100만원 미만	32	20.4	총부채*	500만원 미만	21	13.0
	150만원 미만	63	40.1		1000만원 미만	33	20.4
	200만원 미만	37	23.6		2000만원 미만	59	36.4
	250만원 미만	14	8.9		3000만원 미만	29	17.9
	250만원 이상	11	7.0		3000만원 이상	20	12.3

였다. 고유치 1을 기준으로 요인을 도출한 결과, 모두 6개의 요인이 도출되었고, 부채에 대한 태도 2문항과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 1문항이 하나 이상의 요인에 적재되어 이들을 제외하고 재분석한 결과 각 요인별로 모든 항목들이 하나의 요인에 적재되었으며 설명된 총 변량은 84.64%였다.

한편 각 이론변인들이 서로 다른 구조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이론변인들 간의 상관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모든 상관계수들이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든 상관계수들의 신뢰구간(± 2 표준오차)이 1.0보다 작은 것으로 나타나서(Anderson, 1987), 본 측정모델은 각 이론변인들의 상관성이 높지 않음을 의미하는 판별타당성(discriminant validity)을 가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이론변인들은 서로 정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탐색적 요인분석을 거쳐 남아 있는 측정변인들을 모두 통합하여 측정모델(measurement model)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모든 측정변인들에 대한 모수 추정치의 t-값이 2 이상으로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본 측정모델은 집중타당성(convergent validity)이 있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Anderson & Gerbing, 1988).

또한 전반적인 지수들은 GFI=.96, AGFI=.93, RMSR=.025, NFI=.97, $\chi^2=47.84(p=.60)$, df=51로서, GFI(Goodness-of-Fit Index : $\geq .90$ 이 바람직), AGFI(Adjusted Goodness-of-Fit Index : $\geq .90$ 이 바람직), RMSR(Root Mean Square Residual : .05보다 작을수록 바람직), NFI(Normed Fit Index : $\geq .90$ 이 바람직), χ^2 (작을수록 바람직), χ^2 에 대한 p값($\geq .05$ 가 바람직)의 일반적인 기준들에 비추어 볼 때 모두 바람직한 수준으로서 측정모델의 적합도는 비교적 높다고 판단되었다.

3. 모델분석 결과

신념(bi)과 평가(ei)로 구성되는 인지구조(biei)가 행동에 대한 태도(Aact)를 형성한다고 한 합리적 행동이론 모델과 행동에 대한 태도(Aact)의 선행변인으로서 인지구조(biei) 대신 대상에 대한 태도(Ao)와 해당 행동을 하는데 따르는 비용(cost)을 제안한 이학식과 김영(2000)의 수정모델, 그리고 행동에 대한 태도(Aact)의 선행변인으로서 대상에 대한 태도(Ao)만을 제안한 본 연구모델을 비교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하였다.

세 가지 모델에 대한 구조방정식모델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그림 1>, <그림 2>, <그림 3>와 같이 나타났다. 모델들이 모두 같은 이론변인들로 구성되어 단지 경로구성만이 다른 경우에는 전체 모델을 nest 모델로 하여 χ^2 different test를 통해 어떤 모델이 보다 적합한가를 판단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델들을 구성하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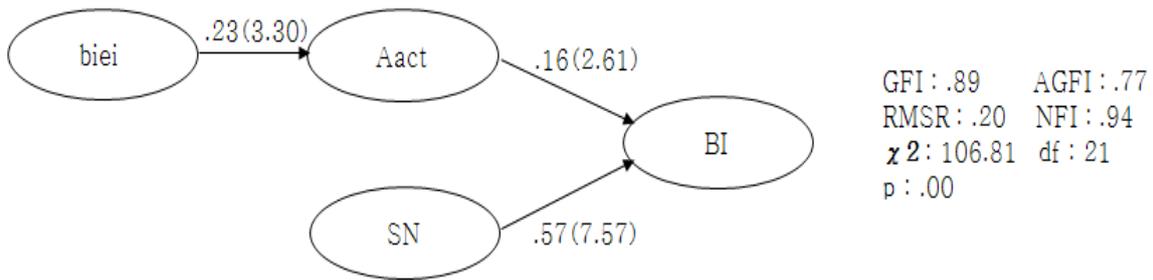
<표 4> 이론변인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

	Ao	Aact	cost	SN	biei	BI
Ao	1.00					
Aact	.21	1.00				
cost	.02	.23	1.00			
SN	.32	.64	.30	1.00		
biei	.02	.25	.68	.38	1.00	
BI	.42	.48	.29	.66	.28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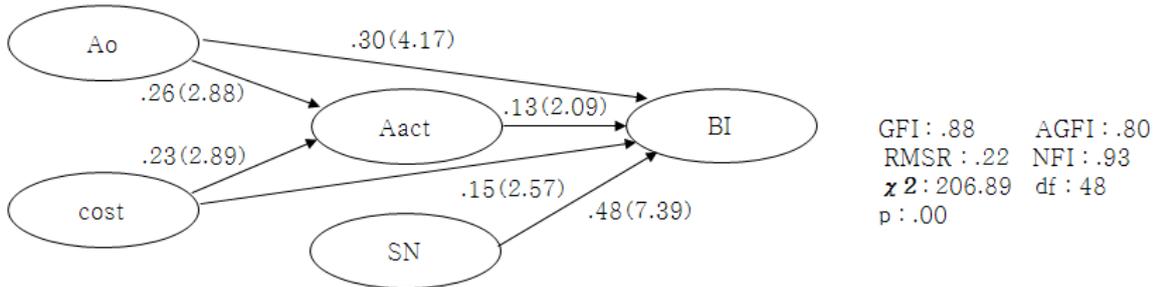
<표 5> 전체 이론변인들에 대한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Variables	Estimates	Normalized Residuals	t-value	Standardized solution	Goodness- of- Fit
Ao	태도 1	1.00	-	-	.82	GFI=.96 AGFI=.93 RMSR=.025 NFI=.97 df=51 $\chi^2=47.84$ (p=.60)
	태도 2	0.94	.15	6.44***	.77	
Aact	행태 1	1.00	-	-	.82	
	행태 2	1.12	.09	12.29***	.92	
cost	비용 1	1.00	-	-	.77	
	비용 2	1.22	.08	14.41***	.95	
	비용 3	1.10	.08	12.94***	.85	
SN	규범 1	1.00	-	-	.84	
	규범 2	1.01	.07	14.60***	.85	
	규범 3	1.01	.07	14.51***	.85	
biei	인지 1	1.00	-	-	1.0	
BI	행태 1	1.00	-	-	.78	
	행태 2	1.13	.09	12.16***	.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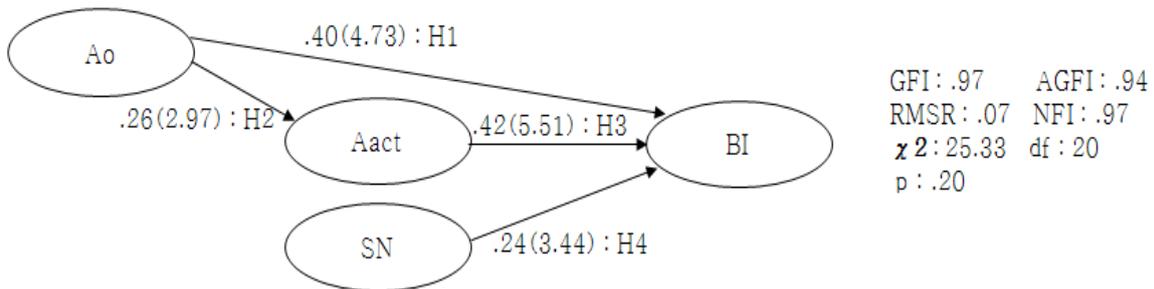
***p<.001



<그림 1> 모델 1 : 합리적 행동이론의 모델분석 결과



<그림 2> 모델 2 : 이학식과 김영(2000)의 수정모델의 분석 결과



<그림 3> 모델 3 : 본 연구모델의 분석 결과

이론변인들이 세 모델들 간에 모두 서로 다르기 때문에 적합도 평가지수를 비교하여 세 모델 간 가장 적합한 모델을 찾고자 하였다.

모델 적합도 평가를 위한 전반적 지수들은 합리적 행동이론에 따른 모델 1의 경우가 GFI=.89, AGFI=.77, RMSR=.20, NFI=.94, $\chi^2=106.81(p=.00)$, $df=21$ 이며, 이학식과 김영(2000)의 수정모델에 따른 모델 2의 경우 또한 GFI=.88, AGFI=.80, RMSR=.22, NFI=.93, $\chi^2=206.89(p=.00)$, $df=48$ 로서,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3의 경우에는 GFI=.97, AGFI=.94, RMSR=.07, NFI=.97, $\chi^2=25.33(p=.20)$, $df=20$ 로서, RMSR 지수는 일반적인 기준에 조금 못 미치고 있었으나, 나머지 지수들은 모두 일반적인 평가기준을 충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세 모델 중에서 본 연구에서 제안한 모델 3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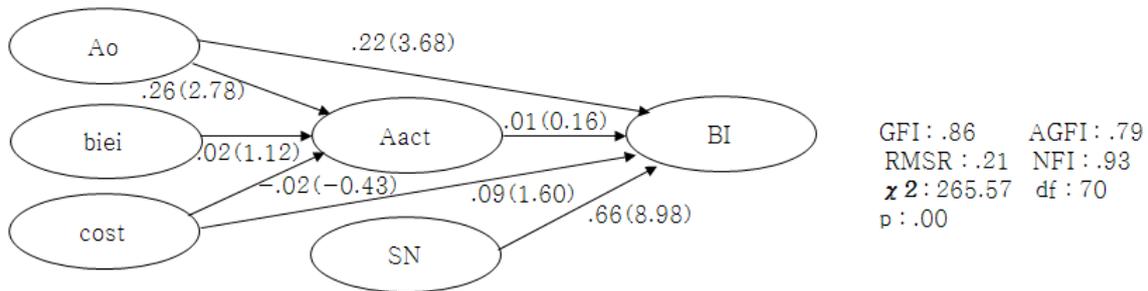
추가적으로, 세 가지 모델에서 제안한 경로들 즉 인지구조(biei)→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비용(cost)→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비용(cost)→부채사용의도(BI),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부채사용의도(BI), 주관적 규범(SN)→부채사용의도(BI),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부채사용의도(BI)의 경로들을 모두 포함한 모델을 nest 모델(<그림 4> 참조)로 설정하여 나머지 세 가지 모델과 간접적인 비교를 위해 χ^2 different test를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제시한 바와 같이 모델 간 차이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모델 간의 부합도의 차이가 간명도를 상실한 것을 보상하고도 남을 만큼 크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모델 적합도 평가에서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던 모델 3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인지구조(biei)와 비용(cost)과 관련한 경로를 추가한

<표 6> nest 모델과 세 가지 모델 간의 χ^2 차이검증 결과

모 델	자유도(df)	χ^2	Δ df	$\Delta\chi^2$
nest 모델	70	265.57		
모델 1	21	106.81	49	158.76***
모델 2	48	206.89	22	58.68***
모델 3	20	25.33	50	240.24***
모델 1 : 2			27	100.07***
모델 2 : 3			27	181.56***
모델 3 : 1			1	81.48***

***p<.001



<그림 4> nest 모델의 분석 결과

nest 모델의 경우,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부채사용의도(BI), 주관적 규범(SN)→부채사용의도(BI)의 경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인구구조(biei)→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부채사용의도(BI), 비용(cost)→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비용(cost)→부채사용의도(BI)의 경로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반적 태도(Ao)와 비용(cost)의 핸드폰구매의도에 대한 직·간접적인 경로가 모두 유의한 것으로 보고한 이학식과 김영(2000)의 연구결과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로서, 20·30대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사용에 관한 소비자의사결정은 소비자에 대한 소비자구매의사결정의 경우와는 다르며, 또한 이미 경험을 통해 부채사용으로 인한 결과들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져 있는 젊은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사용의도에 관한 분석을 수행할 때, 인구구조(biei)나 비용(cost)보다는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가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에 영향을 미치는 선행변인으로서 고려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4. 인과관계 검증결과

연구모형에서 설정한 변인들 간의 인과관계에 대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경로계수를 살펴본 결과는 <표 7>과 같다.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는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

(Aact)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와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주관적 규범(SN)이 부채사용의도(BI)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모형의 경로와 관련하여 설정된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와 부채사용의도(BI)에 관한 가설 H1과,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와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의 관계에 대한 가설 H2,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와 부채사용의도(BI)에 관한 가설 H3, 주관적 규범(SN)과 부채사용의도(BI)에 관한 가설 H4는 모두 지지되었다. 즉, 젊은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와 주관적 규범(SN) 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가 부채사용의도(BI)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사용의도(BI)가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와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주관적 규범(SN) 중 어느 경로를 통해서 더 강하게 영향을 받는가를 확인하기 위해 제 경로들의 직·간접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다.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가 부채사용의도(BI)에 미치는 총 효과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핸드폰 구매의도에 대해 전반적 태도(Ao)가 미치는 영향이 직접 효과뿐만 아니라 간접효과를 포함한 총효과도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 이학식과 김영(2000)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또한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가 부채사용의도에

<표 7>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와 부채사용의도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결과

가설명	가설경로	표준화된 추정치	t 값
H1	전반적 태도(Ao) → 의도(BI)	.40	4.73***
H2	전반적 태도(Ao) → 행동에 대한 태도(Aact)	.26	2.97***
H3	행동에 대한 태도(Aact) → 의도(BI)	.42	5.51***
H4	주관적 규범(SN) → 의도(BI)	.24	3.44***

***p<.001

<표 8> 전반적 태도, 행동에 대한 태도, 주관적 규범이 부채사용의도에 미치는 효과

	가설경로	표준화된 추정치	t 값
간접효과	전반적 태도(Ao) → 의도(BI)	.11	2.81***
	전반적 태도(Ao) → 의도(BI)	.52	5.41***
총효과	행동에 대한 태도(Aact) → 의도(BI)	.42	5.51***
	주관적 규범(SN) → 의도(BI)	.24	3.44***

***p<.001

미치는 영향이 주관적 규범(SN)의 경우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와 주관적 규범(SN)의 상대성에 관한 가설 H5가 지지되었다. 이는 쿠폰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와 주관적 규범(SN)이 의도에 미치는 효과의 크기가 .527과 .317로서 쿠폰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가 주관적 규범(SN)의 경우보다 조금 더 강한 연결을 보여주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인과경로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한 Shimp와 Kavas(1984)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젊은 채무불이행자의 부채사용의도에 관하여 수정모델(모델 3)을 제시하고, 합리적 행동이론의 기본모델(모델 1)과, 소비자행동 측면에서 전반적 태도와 비용을 포함하여 합리적 행동이론의 모델을 수정한 모델(모델 2)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보다 적합한 모델을 찾고, 모델 구성변인들 간 인과관계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분석결과,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 3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는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에 직접적으로 유의한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와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주관적 규범(SN)이 부채사용의도(BI)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직접적인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젊은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와 주관적 규범(SN)

뿐만 아니라,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가 부채사용의도(BI)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에 따른 결론 및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와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 주관적 규범(SN) 중에서 부채사용의도(BI)에 미치는 총효과가 가장 큰 것은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로 나타났다. 이는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결과가 대상행동에 따라 다를 수 있으며, 부채 경험자들의 부채사용결정에 적용함에 있어 대상에 대한 전반적 태도(Ao)를 포함한 통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확장기와 후퇴기를 반복하면서 끊임없이 변동하는 경기순환주기에 따라 금리관련 정책도 변화한다. 대체로 시장금리가 낮거나 금융기관의 여신확대 즉 공급이 늘어난 경우에 부채를 사용하기 쉬운데, 직·간접적인 경험을 통해 부채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면,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더 부채를 사용할 것이다. 또한 대출기간 중 금리가 인상되거나 물가상승에 따라 실질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부채는 안정적인 가계운영에 위협요인이 될 수 있다. 채무불이행의 문제가 주기적으로 발생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때는 경기와 금리, 물가 등 경제적 환경과 정책의 변화가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개인이나 가계의 장단기 재무관련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공공정책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과 인식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주관적 규범(SN) 역시 부채사용의도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는 부채사용여부를 자신의 경제상태와

부채필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통해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고려하여 결정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외환위기 이후 신용확대 정책이 지속되면서 '부채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라는 과거 정서와는 달리 '빚 없이 집사는 사람은 없다'는 식으로 부채를 보다 관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매일 매순간 부채사용을 권유하는 메시지에 여과없이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노출빈도 및 정도는 사회 전체의 부채사용에 영향을 주고, 본인이나 주변인의 부채사용은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와 사용의도에 다시 영향을 줄 것이다.

금융기관의 대출담당자에 따르면, 젊은 층의 채무불이행은 간혹 학자금 대출로 인한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이 과소비로 인한 것으로, 젊은 채무불이행자들은 경제개념도 책임의식도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사회초년생들의 부채로 인한 문제를 개인적 차원의 문제만으로 치부할 수는 없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어린이들도 TV광고를 통해 대출을 권유받고, 아직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한 대학생들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단지 등을 통해 대출을 권유받고 있다. 이러한 노출이 사회초년생들의 부채문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이를 사회구조적인 문제로서 인식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젊은 층의 채무불이행을 예방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는 대출을 권유하는 다양한 형태의 광고를 엄격히 규제할 필요가 있으며, 소비자교육자들은 피해사례를 수집하고, 광고대응을 포함한 부채관련 교육을 시급히 실시하고, 또한 부채사용의 미시·거시적 리스크에 대해 홍보하여, 재무적인 조건이 성숙하지 않은 사회 초년생들에게까지 빚을 권하는 사회문화는 지양될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비용을 포함한 모델이 비용을 포함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 모델적합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인 20·30대의 젊은 채무불이행자들의 경우에는 부채사용에 따른 기회비용과 미래소득 등을 고려한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다는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고려한 심리적인 관점에서 부채사용을 결정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젊은 채무불이행자들의 부채사용에 대한 의사결정이 경제적 관점보다는 심리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들이 비용에 대해 너무 가볍게 생각하거나 구체적으로 인지하지 못한 결과일 수 있다. 실제로 신용회복위원회의 담당자도 대부분의 채무불이행자들이 대출 당시에는 미래의 경제상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여 수수료와 이자비용에 대해 월별, 연별 규모를 정확히 인지하지 않고 있다가, 과중채무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게 된 후에서야 관련 비용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 규모에 놀라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관련 소비자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이자의 종류(변동/고정), 수수료, 총부담액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포함하여, 대출시 이런 정보들을 설명해 주도록 요구함으로써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특히 투자시 원금손실 위험 등과 같은 리스크를 인식시키는 것과 같이 대출시에도 이자변동가능성이나 총부담액과 같은 리스크들을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공급자인 금융기관은 약탈적 대출이 되지 않도록 소비자의 대출여력을 확인한 후에 대출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소득의 1/3이상을 원리금 상환에 사용해야 할 경우 '약탈적 대출'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한다(한겨레신문, 2011). 현재 대출이 발생하면 1주일 이내에 대출정보를 전국은행연합회에 보고하여 모든 대출정보가 전국은행연합회에 집중되도록 하고 있으나, 새마을금고나 신협과 같이 규모가 작은 기관들의 경우 전산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신고가 누락되거나 심지어는 중복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전체 부채규모를 파악하여 소비자의 상환능력에 따라 대출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3,850개 금융기관의 대출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출제도의 관리에는 사후관리도 포함되어야 한다. 대출 제공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여부와 대출한도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채무상환정도에 따라 채무불이행 위험등급을 개발하여 이러한 정보를 금융기관들이 활용하고 개인이나 가계에게도 단계별로 예고할 것을 제안하는 바이다. 투자회사가 투자자에게 분기별로 투자운용보고서를 제공하는 것과 같이 대출기관이 소비자에게 이자율의 변화나 월별, 분기별, 연별 상환액, 위험지수 등을 포함한 부채실태보고서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신용관리교육을 받은 채무불이행자들을 대상으로 교육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시간상의 제약으로 인해 검사도구들의 문항수를 최대한 줄여서 제작하였다. 앞으로 합리적 행동이론의 정확한 적용을 위해서는 먼저 척도개발에 대한 연구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부채사용행동에 대한 태도(Aact)보다 부채에 대한 전반적 태도(Ao)가 행동의도(BI)에 미치는 영향이 큰 것으로 나타난 이유는 행동과 태도를 측정함에 있어서 '특정 행동, 특정 상황, 특정 대상, 발생 시간'이라는 적합성의 4요소 중에서 행동만을 제시하여, 보다 구체적이지 못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따라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일반성/특수성의 수준을 고려하여 태도와 행동을 측정할 후 인과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분석대상을 신용회복위원회 광주지부의 채무조정 신청자로 제한하였다. 합리적 행동이론의 적용결과는 상황별/행동별로 다를 수 있으므로, 채무자/비채무자, 연령별, 부채규모별, 지역별, 계층별, 태도의 강도별 등 다양한 대상(objects)에 대해 비교 및 반복하여 적용해 봄으로써 일반화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횡단연구의 한계로 인해 행동이 아닌 행

동의를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행동의도는 행동의 직접적인 영향요인으로서, 행동의 변이 대부분을 설명한다고 기대되지만, 실제로 우리가 관심이 있는 것은 행동의도가 아니라 행동 그 자체이므로 종단적인 연구설계를 통해 실제 행동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결과는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규범이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치며, 사전경험이나 인구통계학적인 변인 등의 그 외의 변인들은 모두 배경변인으로서 행동에 대한 태도와 주관적 규범을 통해서만 행동의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 Fishbein과 Ajzen(1975)의 주장에 대해, 대상에 대한 전반적 태도 또한 행동의도에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실증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정브리핑(2008). 실록경제정책: ② 신용불량자 너관 해체. 2008. 1. 23. <http://korea.kr>
- 금융감독원(2006). 금융채무불이행자에 대한 마이크로크레딧 사업추진. 2006. 8. 29. 보도자료.
- 김정훈(2000). 여대생과 주부의 돈과 신용에 대한 태도 비교. **대한가정학회지**, 40(3), 165-175.
- 성영애 · 양세정(1995). 가계의 부채부담과 관련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3(1), 207-219.
- 성영애 · 정희영(2006). 금융채무불이행자와 연체미경험자의 재무상태, 신용에 대한 태도 및 재무관리행동 비교분석. **2006년 한국소비자학회 추계학술대회자료집**, 1-20.
- 이기춘 · 박근주(1997). 소비자신용 연체행동에 대한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5(3), 139-151.
- 이은영 · 허은정(2005). 부채가계의 연체행동 및 관련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16(1), 179-194.
- 이철(1990). Fishbein 구매의사 결정 모델의 한국적 수정모델의 개발. **마케팅연구**, 5(1), 182-209.
- 이학식(1997). 선물선택행동에 관한 수정 BI모델과 조정변수들의 효과. **소비자학연구**, 8(2), 21-41.
- 이학식 · 김영(2000). 합리적 행동이론과 계획적 행동이론의 평가와 대안적 견해-소비자 구매행동의 맥락에서. **소비자학연구**, 11(4), 21-47.
- 임대봉 · 이병완(2005). 신용불량자 문제의 요인분석. **2005 경제학 공동학술대회자료집**, 1-22.
- 재정경제부(2004). 신용불량자 현황 및 대응방향. 2004. 3. 10. 보도참고자료.
- 조혜진(2004). 소비자의 신용과다사용 심각도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조혜진 · 최현자(2006). 소비자의 신용과다사용 문제와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7(2), 155-178.
- 최현자 · 조혜진(2008). 다중연체자의 채무재조정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소비자학연구**, 19(1), 25-46.
- 한겨레신문(2011). 2011. 5. 26.
- 한국은행(2010). 금융안정보고서. 2010. 4.
- Abrams, D., Ando, K. & Hinkle, S.(1998). Psychological Attachment to the Group: Cross-cultural Differences in Organizational Identification and Subjective Norms as Predictors of Workers' Turnover Intention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4, 1027-1039.
- Ajzen, I.(1971). Attitudinal vs. Normative Messages: An Investigation of the Differential Effects of Persuasive Communications on Behavior. *Sociometry*, 34, 263-280.
- Ajzen, I.(1982). On Behaving in Accordance with One's Attitudes. In M. P. Zanna, E. T. Higgins & C. P. Herman (Eds.), *Consistency in Social Behavior: The Ontario Symposium*(2, 3-15). Hillsdale, NJ: Erlbaum.
- Ajzen, I.(1985). From Intention to Actions: A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J. Kuhl, & J. Beckman (Eds.), *Action-control: From Cognition to Behavior* (11-39). Heidelberg, Germany: Springer.
- Ajzen, I.(2001). Nature and Operation of Attitudes. *Annual Review of Psychology*, 52, 27-58.
- Ajzen, I.(2008). Consumer Attitudes and Behavior. In C. P. Haugtvedt, P. M. Herr & F. R. Cardes (Eds.), *Handbook of Consumer Psychology*(525-548). N.Y.: Lawrence Erlbaum Associates.
- Ajzen, I. & Driver, B. L.(1992). Applic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to Leisure Choice. *Journal of Leisure Research*, 24, 207-224.
- Ajzen, I. & Gilbert Cote, N.(2008). Attitude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In W. D. Crano & R. Prislin(Eds.), *Attitudes and Attitude Change*(289-311). N.Y.: Psychology Press.
- Ajzen, I. & Fishbein, M.(1969). The Prediction of Behavioral Intentions in a Choice Situation.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5, 400-416.
- Ajzen, I. & Fishbein, M.(1977). Attitude-behavior Relations: A Theoretical Analysis and Review of Empirical Research. *Psychological Bulletin*, 84, 888-918.
- Ajzen, I. & Fishbein, M.(1980). *Understanding Attitudes and Predicting Social Behavior*.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 Ajzen, I. & Fishbein, M.(2005). The Influence of Attitudes on Behavior. In D. Albarracín, B. T. Johnson, & M. P. Zanna(Eds.), *The Handbook of Attitudes*(173-221). Mahwah, NJ: Erlbaum.
- Ajzen, I. & Madden, T. J.(1986). Prediction of Goal-directed Behavior: Attitudes, Intentions, and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22, 453-474.
- Ajzen, I. & Manstead, A. S. R.(2007). Changing Health-related Behaviors: An Approach Based on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In K. van den Bos, M. Hewstone, J. de Wit, H. Schut & M. Stroebe (Eds.), *The Scope of Social Psychology: Theory and Applications* (43-63). N.Y.: Psychology Press.
- Anderson, J. C.(1987). An Approach for Confirmatory Measurement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of Organizational Properties. *Management Science*, 33(4), 525-541.
- Anderson, J. C. & Gerbing, D. W.(1988).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n Practice: A Review and Recommended Two-Step Approach. *Psychological Bulletin*, 103(3), 411-23.
- Armitage, C. J. & Conner, M.(1999). Distinguishing Perceptions of Control from Self-Efficacy: Predicting Consumption of a Low-Fat Diet Using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72-90.
- Armitage, C. J. & Conner, M.(2001). Efficacy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40, 471-499.
- Bagozzi, R. P., Baumgartner, H. & Yi, Y.(1992). State versus Action Orientation and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n Application to Coupon Us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8, 505-518.
- Bar-Gill, O.(2004). Seduction by Plastic. *Northwestern University Law Review*, 98(4), 1373-1434.
- Bentler, P. M. & Speckart, G.(1979). Models of Attitude-Behavior Relations. *Psychological Review*, 86, 452-464.
- Bentler, P. M. & Speckart, G.(1981). Attitudes "Cause" Behaviors: A Structural Equation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0, 226-238.
- Bonfield, E. H.(1974). Attitude, Social Influence, Personal Norm and Intention Interactions as Related to Brand Purchase Behavior.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11, 379-389.
- Davidson, A. R. & Jaccard, J. J.(1979). Variables that Moderate the Attitude-Behavior Relation: Results of a Longitudinal Surve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1364-1376.
- Davidson, A. R. & Morrison, D. M.(1983). Predicting Contraceptive Behavior from Attitudes: A Comparison of Within- versus Across- Subjects Procedur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997-1009.
- East, R.(1993). Investment Decisions and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337-375.
- Fazio, R. H.(1990). Multiple Processes by Which Attitudes Guide Behavior: The MODE Model as an Integrative Framework. In M. P. Zanna(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23, 75-109). San Diego, CA: Academic Press(Ajzen & Fishbein, 2005에서 재인용).
- Fishbein, M.(1963). An Investigation of the Relationships between Beliefs about an Object and the Attitude toward that Object. *Human Relations*, 16, 233-240.
- Fishbein, M. & Ajzen, I.(1974). Attitudes towards Objects as Predictors of Single and Multiple Behavioral Criteria. *Psychological Review*, 81, 59-74.
- Fishbein, M. & Ajzen, I.(1975). *Belief, Attitude, Intention and Behavior: An Introduction to Theory and Research*. Reading, MA: Addison-Wesley.
- Getter, D. E.(2003). Contributing to the Delinquency of Borrowers.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7(1), 86-100.
- Godwin, D. D.(1997). Dynamics of Households' Income, Debt and Attitudes toward Credit, 1983-1989. *Journal of Consumer Affairs*, 31(2), 303-326.
- Godin, G., Valois, P., Lepage, L. & Desharnais, R.(1987). Prediction of Leisure-time Exercise Behavior: A Path Analysis(LISREL V) Model. *Journal of Behavioral Medicine*, 10, 145-158.
- Gorsuch, R. L. & Ortberg, J.(1983). Moral Obligation and Attitudes: Their Relation to Behavioral Inten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1025-1028.
- Gur-Arie, O., Richard, M. D. & William, O. B.(1979). Attitudinal and Normative Dimensions of Opinion Leaders and Nonleaders. *Journal of Psychology*, 101, 305-312.
- Hill, M., Mann, L., & Wearing, A. J.(1996). The Effects of Attitude, Subjective Norm and Self-Efficacy on

- Intention to Benchmarking: A Comparison between Managers with Experience and No Experience in Benchmarking. *Journal of Organizational Behavior*, 17, 313-327.
- Hira, T. K.(1990). Changes in Factors Influencing Consumer Debt among Scottish Families, 1984-1987. *Journal of Consumer Science & Home Economics*, 14, 165-175.
- Kraus, S. J.(1995). Attitudes and the Prediction of Behavior: A Meta-analysis of the Empirical Literature.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1, 58-75.
- Kothandapani, V.(1971). Validation of Feeling, Belief, and Intention to Act as Three Components of Attitude and Their Contribution to Prediction of Contraceptive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 321-333.
- Lea, S. E. G., Webley, P., & Levine, R. M.(1993). The Economic Psychology of Consumer Debt.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4, 85-119.
- Lea, S. E. G., Webley, P., & Walker, C. M.(1995). Psychological Factors in Consumer Debt : Money Management, Economic Socialization, and Credit Use.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6, 681-701.
- Livingstone, S. & Lunt, P. K.(1992). Predicting Personal Debt and Debt Repayment : Psychological, Social and Economic Determinants. *Journal of Economic Psychology*, 13, 111-134.
- Manstead, A. S. R., Proffitt, C. & Smart, J.(1983). Predicting and Understanding Mothers' Infant-Feeding Intentions and Behavior: Testing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657-671.
- Miniard, P. W., & Cohen, J, B.(1983). Modeling Personal and Normative Influences on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0, 169-180.
- Miniard, P. W., Obermiller, C., & Thomas, J. P.(1982). Prediction Behavior with Intentions: A Comparison of Conditional versus Direct Measure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9, 461-464.
- Oliver, R. L. & Bearden, W, O.(1985). Crossover Effects in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 Moderating Influence Attempt.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2, 324-340.
- Rhodes, R. E., Courneya, K. S., & Jones, L. W.(200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Lower-order Personality Traits: Interaction Effects in the Exercise Domain.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38(2), 251-265.
- Ryan, M. J.(1982). Behavioral Intention Formation: The Interdependency of Attitudinal and Social Influence Variables.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9, 263-278.
- Ryan, M. J. & Bonfield, E. H.(1980). Fishbein's Intention Model: A Test of External and Pragmatic Validity. *Journal of Marketing*, 44, 82-95.
- Sheeran, P. & Taylor, S.(1999). Predicting Intentions to Use Condom: A Meta-analysis and Comparison of the Theories of Reasoned Action and Planned Behavior.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29, 1624-1675.
- Sheppard, B. H., Hartwick, J., & Warshaw, P. R.(1988).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 Meta-analysis of Past Research with Recommendations for Modifications and Future Research.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5, 325-342.
- Shimp, T. A. & Kavas, A.(1984). The Theory of Reasoned Action: Applied to Coupon Usage. *Journal of Consumer Research*, 11, 795-809.
- Stavins, J.(2000). Credit Card Borrowing, Delinquency, and Personal Bankruptcy, *New England Economic Review*, July/August, 15-30.
- Terry, D. J. & O'Leary, J. E.(1995).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ur: The Effects of Perceived Behavioral Control and Self-Efficacy. *British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34, 199-220.
- Thaler, R. H.(1990). Anomalies-saving, Fungibility, and Mental Accounts.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4(1), 193-205.
- Thurstone, L. L.(1931). The Measurement of Social Attitudes. *Journal of Abnormal and Social Psychology*, 26, 249-269.
- Trafimow, D. & Finlay, K. A.(1996). The Importance of Subjective Norms for a Minority of People: Between-Subjects and Within-Subjects Analyse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820-828.
- Zuckerman, M. & Reis, H. T.(1978). Comparison of Three Models for Predicting Altruistic Behavi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498-510.

접수일 : 2011년 03월 15일

심사일 : 2011년 04월 04일

게재확정일 : 2011년 11월 09일